

중국 '關係(Guanxi)' 문화의 사회적 영향*

부패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계량적 고찰

이준태·김정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제1저자)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교신저자)

< 목 차 >

- | | |
|---|--------------------|
| I. 서론 | VI.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
| II. 中國 '關係'에 관한 개념 정의 | VII. 결론 |
| III. 關係 네트워크와 지대 추구 (Rent-seeking) | 참고문헌 |
| IV. 지대추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關係 네트워크 | Abstract |
| V. 가설검정을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
(Asianbarometer 2009) | |

Key words(중심용어): 關係文化(Guanxi Culture), 중국 국민성(Chinese National Identity), 부정부패(Corruption), 중국인 심리현상(Chines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지대 추구(Rent-seeking)

국 문 요 약

중국하면 관계(關係)를 떠올릴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관계(關係)가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關係는 중국인의 심리와 행위양식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세계 곳곳에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人治를 구가해 온 중국에서는 분명 다른 지역 국가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도 그 전통을 존속시켜 왔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전통의 단면으로서 關係에 대한 현재 중국인이 인식을 규명한 결과, 첫째, 현대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구조와 관련하여 關係를 사회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중국 내 부패구조 존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신랄한 비판을 할 정도로 본인의 關係 활용에 대한 역설적인 존재인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부패구조에 대한 역설적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62-A00011)

인 비판을 하는 중국인들일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关系문화가 향후 21세기에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중국사회에서 그 존재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분석 결과, 젊은 계층의 关系에 대한 활용 의지 및 행동 욕구가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중국의 고유한 关系문화는 시대가 흘러감과 동시에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I. Introduction

2000년대 초반부터 서방세계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경제통상 분야의 실무자들 사이에서 중국과 관련된 논문들과 각종 비즈니스 관계 서적들에 등장하게 된 용어 가운데 ‘关系 (guanxi)’¹⁾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내의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关系’는 중요한 연구주제에 속하여 있었지만, 최근처럼 서방세계의 관련분야에서 ‘中國 关系’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적은 없었다. (M.M. Yang 1994)

하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물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담론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때 关系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关系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뉘앙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关系 Network(关系网)’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의 关系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사업관계와 대정부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M.W. Peng & Y.D. Luo 2000)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가 비교적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사업네트워크로서의 关系와 대정부 네트워크로서의 关系가 어떻게 중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关系연구에 있어 미약한 부분은 ‘关系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여러 증거들이 혼합되어 연구에 사용됨에 따라 논리적 증거제시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진행된 연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关系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증거들은 연구자의 취향에 의해 선택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关系의 사회적 가치와 서로 독립적인 사회현상과 인위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였다. 예를 들면, 关系의 가치를 주변 환경적 요소, 특히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M.W. Peng & Y.D. Luo 2000) 혹은 사회 내에서 경쟁의 심화현상과 과학기술의 불안정성 등에서 关系의 사회적 가치를 정의내리고자 한 경향도 강하였다. (F.F. Gu., K. Hung & D.K. Tse

1) 중국 학계의 ‘關係’에 정의를 보면, 먼저 關係는 “사회학에서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물간의 일종의 성질 관계 예를 들면 ‘拉關係’, ‘關係戶’, ‘同志關係’, ‘居民關係’, ‘社會關係’ 등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용어에 쓰여지고 있는 ‘關係’를 좀 더 분석하여 보면 ‘關係’는 친밀함 내지는 긴밀함을 내포하는 용어로서 단순한 ‘聯系’ 차원을 넘어 쌍방 간 재화 및 감정의 교환을 통한 일종의 연대로 설명하고 있다.(杜晓丽·聂家华(2010), “论关系网文化对政府官员腐败行为的影响及对策,” 『山东农业大学报』, 44.)

2008) 이러한 연구경향에 있어서 미비점들은 넓게 보면 ‘中國 關係’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아직 부재한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중국인에 있어 關係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중국인의 關係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여 본 논문에서는 (1) 關係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향들을 살펴봄으로서 개념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전체적인 關係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정의 (conceptualization)를 제시하고 (2) 關係 文化가 현대 중국정치/경제 성장과정에서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부정부패(corruption)’²⁾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3)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집된 중국인의 사회의식 여론조사 (Asianbarometer 2008)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인의 關係와 부패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關係 文化를 중요한 삶의 도구(instrument)로 인식하는 중국인들은 정부기관이나 관료를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關係와 부패간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음을 데이터 분석결과 보여 주고 있다.

II. 中國 ‘關係’에 관한 개념 정의

중국문화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關係라는 개념이 무척 복잡하고 심지어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방세계에는 영어 단어 중 關係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문자에서 쓰이는 關係는 단어 자체에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1) 동일한 그룹의 멤버로서 다른 멤버들과의 친밀한 관계성 (2)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 간의 느슨한 연계성 (3)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하는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등을 말한다. (Y. Bian 1994) 세 가지 타입의 關係는 서로 다른 (접촉)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경향이 강하다.

關係의 분류법에 집착하지 말고 關係의 개념정의를 “관계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황의 1987년 연구에 의하면 關係의 구조적 본질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K. K. Hwang 1987) 첫째, 사회적 영향력 (Socio-affective)으로서의 關係 개념은 가족 혹은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랑이나 소속감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감정의 교환이 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둘째, 도구(Instrumental)로서의 關係 개념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처럼) 재화교환의 시장 속에서의 관계를 뜻하는데 이러한 개념의 關係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물질적 만족을 위한 상호 호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Mixed)의 關係가 있는데 이는 ‘감정의 친밀감’과 ‘물질적 혜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로서 흔히 직장동료, 동문, 같은 지역출신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2) 關係網을 통해 발생하는 부패의 원인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첫째는 主體論으로서 부패 행위를 권력의 주체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 것이며, 둘째는 制度論으로서 정치부패의 원인이 사회 법률제도의 불건전성에 찾으려는 관점이며, 셋째는 文化論으로서 부패를 일종의 사회 역사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余緒鵬 (2006), “腐敗的外部條件研究-關係及根源,” 『淮北職業技術學院報』5(2).)

세 가지 형태의 关系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 보면 关系의 본질적/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족’, ‘후원자’ 그리고 ‘사업상 동반자’와의 관계 등 세 가지 관계설정을 상정하고 있다. ‘가족 간 关系’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감정적이고,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한 물질적 교환이 필수조건은 아닌 상태로서 친밀감/소속감이라는 감정의 교환을 중시하는 관계를 말한다. 반면에 ‘후원자와의 关系’는 현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부산물로서 주로 효용성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부탁/청탁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관계를 말한다. 질적인 면에서만 볼 경우 ‘가족 간 关系’가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훨씬 안정적이며 지속력이 강한 관계인 반면 ‘후원자와의 关系’는 상대적으로 지속력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회성 관계를 전략할 요소가 많은 관계를 말한다.(Y. Fan, 2002)

하지만 현실 중국사회를 살펴보면 위의 세 가지 타입의 关系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关系 개념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위의 세 가지 타입중 하나에서 시작했을 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타입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는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하나 이상의 관계설정이 혼재되어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关系에 대한 연구방법론상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였던 关系 개념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슈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첫째로 关系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유교적 사회구조의 한 단면인지 아니면 중국 정치 경제의 기능적 측면인지에 대한 논쟁이다.(A.B. Kipins 1997)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논쟁의 답은 세 타입의 关系중 어느 타입의 关系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가족 간 关系’는 유교적 문화의 유산물이고 ‘후원자’와 ‘사업상 동반자’와의 关系는 현대 중국 정치, 경제 상황의 부산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논쟁거리는 중국 사회에 있어 关系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차차 소멸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J. T. G. Arias, 1998) ‘가족간 关系’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타입의 关系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 중요성이나 기능적 측면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요약하면 关系 문화는 중국인의 고유한 삶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쉽게 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면이 있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그 규모의 팽창과 함께 빨라지게 되는 상황에선 关系 문화가 전체 중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부패)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특수한 (사회) 구조적 환경과 关系 네트워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가’를 (J. Wu, 2001)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측의 적실성을 알 수 있다.

Ⅲ. 关系 네트워크와 지대 추구 (Rent-seeking)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중국인의 關係는 끊임없는 사회적 교환 작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교환 작용은 “사회적 상호교환 과정에 활발하면서도 지

속적/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關係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재정립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종류의 관계성”(Y. Yan 1996)을 포함하고 있는 교환 과정을 말한다. 합리성 이론의 기본적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의 關係는 ‘종결 없는 게임’(no end-game)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 교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종결 없는 게임의 상황이란 關係 네트워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개인이 인적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적 일들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그 바탕에는 주어진 일들을 도외시 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는 반드시 (인적네트워크 내부의 규칙에 의거하여) 발각되어 처벌된다는 關係 네트워크의 특성이 사회적 상호교환과정의 원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A. Smart, 1993) 關係 네트워크의 특성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호교환과정의 필요성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 교환 작용과 관련해 볼 때, 중국인에게 있어서 關係란 서구세계의 시장 원리가 아닌 ‘조공 경제’(gift economy) (M. Mauss 1967)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의 원리는 상품과 구매대금이 서로 교환될 때 상호교환이 완성되는 것에 반해, 조공 관계에서 보면 주어진 공물(선물)이 수혜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상호교환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미래에 부탁할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선물을 줄 수 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에 어떤 부탁을 할 지 모르고 만약 현재의 선물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움을 줘야 하는지 결정내리기 힘든 상황이 많으므로 조공 관계를 기초로 하는 關係에 있어서 상호 교환 작용은 복잡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교환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關係를 확대/심화시키는 활동은 미래를 위한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규모가 아주 큰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투자행태를 시장경제논리에서 보면 일종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구의 경제논리에서는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지대추구 행태와 관련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구 소련연방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중앙정부의 지대할당(rent-distribution) 행태와 개별 사업자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태와 결합되어 전형적인 부패구조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G.M. Anderson and P. J. Boetike 1993) 지대추구 시스템이 주요 작동 원리인 사회의 특징을 보면 광범위하면서도 독점체제를 옹호하는 각종 정부의 규제 정책들 시행, 무분별한게 남발하는 특권, 로비행태에 막대한 자금 투자,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 부실,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이다.

중국경제는 1978년 이후 확대 시행된 경제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지대추구 행위들이 시작되었다. 등소평의 지방자치권한 강화정책으로 많은 지방의 행정 관료들이 수많은 지대추구 행위에 직접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지방 정부의 관료들은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입찰권, 세제 감면 정책,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개인적 청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이 강하였고 이는 지대추구 시스템 구축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면 될수록 지대추구 행위는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지방정부 관료들이 물적 재산권의 통제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 지대확보를 위해 개별 사업자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의 구조가 형성되었고 갈등 구조는 다시 지대추구 시스템의 확대로 이어졌다.

IV. 지대추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关系 네트워크

중국인의 关系 문화는 경제개방 초기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패 구조의 모태가 된 지대추구 행위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 관료들은 한편으로 청탁 의뢰인들에게는 특정 사업에 대해 ‘자유재량권 (discretionary decision)’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제어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대추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대추구가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关系 네트워크 속에서 축적되어온 개인적 신뢰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대할당자로서 정부 관료도 상호교환과정으로서의 关系 네트워크의 일원임으로 지대 추구자에 대한 신뢰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关系 네트워크는 이러한 지대할당과 추구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무분별한 지대추구 행태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책의 시행, 이에 따른 고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사업가들은 권한이 집중된 높은 지위의 정부 관료들과 접촉을 시도/유지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관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순이익보다 적을 경우엔 关系 네트워크는 계속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 关系는 흔히 경제 네트워크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 关系와 경제네트워크 사이의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경제 关系에서 중요한 인적구성원은 서방세계와 달리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아니라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 관료 집단이다. 오래 동안 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전통적 통치 [人治]’가 이루어졌던 사회에서는, 정부 관료와 좋은 关系를 가지고 있는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인(사업가)와 정부 관료와의 특수한 关系 관계를 중국인들 사이에선 ‘타락한 关系’ 혹은 ‘钱权交易’이라고 부른다. (Y. Fan 2002) 关系 문화에 의해 ‘돈’과 ‘권력’이 묶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엔 부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돈 ⇐ 关系 ⇒ 권력 ⇒⇒⇒ 부패>

실제로 중국내에서는 关系라는 단어 자체를 ‘연고주의’, ‘뇌물’, ‘사기’ 등 부패구조나 부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M. M. Yang 1994)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부패구조는 어느 국가나 사회집단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의 关系는 이러한 부패구조를 형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의 关系 문화와 정부 관료의 부패/부정행위에 대한 인식구조를 최근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기존의 담론 수준의 논의에 그쳤던 关系와 부패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여 다음의 두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문화혁명 후 급격한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주로 누리면서 의식의 서구화에 노출된 세대와 발전의 혜택보다는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즉 경제발전의 주체 세력으로 중국의 전통의식이 더 강한 세대간의 “关系”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세대나 소득수준의 구분없이 關係에 대한 인식이 강한 계층 (사회활동에서 關係를 더욱 자주 활용하면서 關係 문화에 밀접하게 젖어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사이에 정부의 부패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가설이다.

[가설1] 현대 중국내에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세대일수록 關係문화에 대한 인식이 적은관계로 활용수준이 기성세대 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2] 현대 중국내에서 關係 문화를 잘 활용하는 계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가 더욱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설3] 현대 중국내에서 關係 문화의 활용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설 3]은 [가설 2]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정하는 것으로 중국내에서 關係 문화가 개인/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다면 [가설 2]에서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이 통계분석에 의해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고 [가설 2]의 정부 관료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과 반비례하는 수치를 보여준다면 중국 내 關係 문화가 더 이상 개인/가족/사회집단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관료 부패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면, 중국내 關係 문화가 아직도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 關係를 활용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 (혹은 이익)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V. 가설검정을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 (Asianbarometer 2008)

본 연구에서는 <Asianbarometer 2008> 설문데이터를 기본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³⁾ ‘Asianbarometer’는 아시아지역의 거버넌스, 민주주의, 정치적 가치, 대중 의식 등을 과학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제적 공조기관이다. 아시아지역의 13개 국가와 5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중국인의 사회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아시안바로미터(Asianbarometer) 2008>은 2007년12월부터 2008년6월까지 대만과 티벳 자치구 지역을 제외한 중국 본토 거주민 중 만18세 이상의 성인남녀 5,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로서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6,971명이었다. ‘다단계층화표본추출법

3) 웹사이트 접속 2011년 12월, <http://www.asianbarometer.org> 아시안 바로미터 프로그램 본부는 국립대만 대학교 인문사회과학관 소속 정치연구소에 있음.

(Stratified multistaged area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추출을 실시하였고, 문항은 총 199문항이다. 총 응답자 6,971명중 77.5%가 여론조사 전체문항에 답하여 주었고 중국 전체인구 중 지역별 (동부=33%, 중부=43%, 서부=24%)⁴⁾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을 하였다. 동부지역은 上海, 山東, 천진, 북경, 강소, 절강, 복건, 광둥, 요녕성을 포함한 지역이고, 중부지역은 해남, 섬서, 길림, 안휘, 강서, 하북, 하남, 호북, 호남, 흑룡강, 광서성이고, 서부지역은 내몽고, 사천, 칭해, 중경, 귀주, 운남, 신강, 영하성 지역을 포함하였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분할 한 후 다시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따라 ‘층화표본추출’을 하였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구비율’, ‘연령’, ‘산업화 정도’, “교육수준”의 편차에 따라 표본의 수를 비례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face-to-face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한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군중들의 실제적인 关系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자 199문항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을 이론적 근거에 의거하여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현대 중국인들 개개인의 关系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질문을 응답자들에게 하였고 요인분석⁵⁾ 후 공통요인으로 변수를 일원화하여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질문1) 평균적으로 볼 때, 당신은 일주일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을 합니까?

- (1) 0 - 4인 이하 (2) 5-9인 이하 (3) 10-19인 이하 (4) 20-49인 이하 (5) 50인 이상
(8) 잘 모르겠다 (9) 무응답

질문2)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 혹은 공동체(집단)내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쳐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러한 부탁을 받고 있습니까?

- (1) 받아본 적 없다 (2) 아주 가끔 (3) 가끔 (4) 자주 (8) 잘 모르겠다 (9)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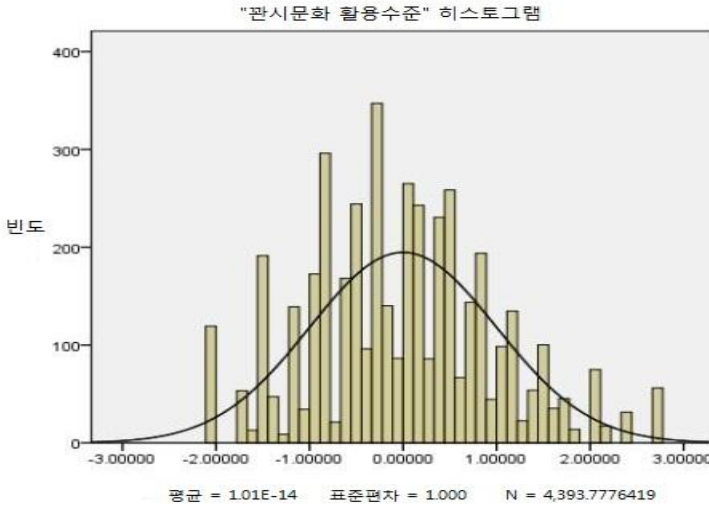
질문3) 질문2와 관련하여 당신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한두 명 정도 (3) 서너 명 이상 - 열 명 이하
(4) 열 명 이상-아주 많이 있다 (8) 잘 모르겠다 (9) 무응답

위의 세 질문항의 데이터를 요인분석을 통한 차원감소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변수로 환원하였고, 이 새로운 변수를 ‘关系 文化 활용수준’으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의 모수정규분포 가정 검정과 분포도는 <그림 1>과 같이 정규분포임을 알 수 있고 선형회귀분석 사용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4) 데이터 근거: “국가 인구조사 위원회”의 『2000 국가 물적 분배에 따른 인구조사』, 중국 통계국 발간, 2003년 3월.

5) 요인분석이란 주어진 변수에 내재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자료정리와 요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변량 분석이다. 대체로 많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근원적인 차원으로 변수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요인분석의 가장 주된 목적은 수많은 원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변수들을 요약하여 새롭게 합성된 요인의 적은 집합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림 1> “관시문화 활용수준” 히스토그램

VI.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

가설검정을 위한 종속변수 ‘关系 문화 활용수준’과 통제변수들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과 독립변수들 (부패문화에 대한 인식수준과 사회생활 만족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선형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 중국인의 關係문화 활용수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계수						
모형 [종속변수 : 关系문화활용수준(↑)]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Collinearity Statistics	
		B	표준오차	베타			Tolerance	VIF
1	(상수)	.108	.087		1.250	.211		
	성별 (1=남성/2=여성)	.136	.026	.073	5.315	.000	.986	1.015
	연령(↑)	.008	.001	.146	10.509	.000	.964	1.038
	교육수준(↑)	.001	.001	.017	1.197	.231	.950	1.053
	가계평균월소득(↑)	.000	.001	.004	.267	.789	.995	1.005
	사회만족도(↑)	.070	.007	.134	9.695	.000	.976	1.025
	정부관료 부패에 대한 비판의식(↑)	.039	.020	.028	2.010	.044	.985	1.015
모형적합도(R)	R제곱	표준화 R제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0.220	0.048	0.047	212.180	6	35.363	43.067	0.000	

“关系文化 활용수준”을 설명하는 <표 1>의 모형 적합도(R)는 0.220이고 자유도 6에 의한 양측 검정 ($F=43.067$)의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들의 설명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형1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간섭효과문제 (Multi-Collinearity problem)를 테스트한 VIF 테스트 결과 독립 변수들 간에 상호 간섭에 의한 모형의 부적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현대 중국내에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세대일수록 关系문화에 대한 인식이 적은관계로 활용수준이 기성세대 보다 낮을 것이다.)과 관련하여 모형1의 독립변수 중 ‘연령’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베타 값이 양수(0.008)이고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关系 문화의 활용수준도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설 1]의 가정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21세기 중국사회 내에서 关系 문화의 존립을 추측하여 볼 때 경제발전과정에서 사회적 고통을 공유한 세대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경제 발전결과물의 혜택을 주로 누리며 서구사회에 더 개방되어져가는 시대에 살게 될 젊은 계층에게서는 关系 문화가 어울리지 않는 옷으로 취급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즉 关系 문화는 중국이 더욱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그 영향력은 중국 사회 내에서 차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설2] (현대 중국내에서 关系 문화를 잘 활용하는 계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가 더욱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결과 关系 문화의 활용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정부 관료들의 부패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 “정부관료 부패에 대한 비판의식”의 베타 값=0.039로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95% 신뢰수준에서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关系 문화의 활용을 잘하여서 (정부 관료와 부패의 고리-지대추구) 정당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사업상 혹은 다른 비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중국인들이 정부 관료의 부패 문제에 대해 더욱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더욱 신랄하게 하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추론되어 진다.

[가설 3] (현대 중국내에서 关系 문화의 활용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과 관련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와 종속변수 ‘关系 文化的 활용수준’사이에 정비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 값=0.070,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으므로 99% 신뢰수준에서 대립가설 기각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을 보면 두 변수 사이의 정비례관계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합리적 판단 경향을 볼 때 (Rational choice theory -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행위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 关系문화를 잘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가설 2]와 [가설 3] 모두 통계분석 결과 정비례의 관계가 종속변수와 있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현대 중국사회에는 아직도 关系 문화가

존재하며 정부 및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關係 문화가 중국 고유의 전통적인 의식구조 속에 자리 잡아 왔음을 關係 문화 활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구조를 신랄히 비판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 높이는 데에는 방법론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關係 문화의 사회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사회에서 關係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낡은 유행의 옷이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일반 중국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Ⅶ. 결 론

중국하면 關係를 떠올릴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關係가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關係는 중국인의 심리와 행위양식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인식되어져 왔다. 물론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세계 곳곳에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人治를 구가해온 중국에서는 분명 다른 지역 국가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도 그 전통을 존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분명 중국의 오랜 전통으로서 긍정적 측면을 중국적 특징으로 인정되어 지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전통의 단면으로서 關係에 대한 현재 중국인이 인식을 규명하고자 했던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대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구조와 관련하여서 關係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關係를 사회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일 수록 중국내 부패구조 존재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었고 더 나아가 신랄한 비판을 할 정도로 본인의 關係 활용에 대한 역설적인 존재인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비록 關係의 활용에 의한 정부 관료와의 부정당한 관계 속에서 부패구조에 대한 역설적인 비판을 하는 중국인들일 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關係에 의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국인들) 계층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패구조에 대한 비판은 높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關係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직간접적인 이익추구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關係문화가 향후 21세기에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중국사회에서 그 존재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분석 결과 젊은 계층의 關係에 대한 활용 의지 및 행동 욕구가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중국의 고유한 關係문화는 시대가 흘러감과 동시에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중국사회에서는 關係의 존재가 실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영향은 아직도 크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히었다.

참 고 문 헌

- 鄭錫元(1999). “中國 國民性 研究 -‘關係’(Guan-Xi)의 出現背景.” 『中蘇研究』. 83.
- 鄭錫元(2005). “中國 國民性 研究 -‘關係’(Guan-Xi)와 家庭.” 『中國語文學論集』. 29.
- 정하영(2004). “중국의 ‘관시’문화에 대한 시론.” 『중국학연구』. 27.
- 이창훈 · 유승훈(2006). “관시 활용도의 결정요인과 관계의 질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10(3).
- 杜晓丽·聂家华(2010). “论关系网文化对政府官员腐败行为的影响及对策.” 『山东农业大学报』. 44.
- 余绪鹏(2006). “腐败的外部条件研究-关系及根源.” 『淮北职业技术学院报』. 5(2).
- 李汉宗(2010). “论关系的本质-基于中美之间社会关系对求职途径影响的比较分析.” 『甘肃行政学院学报』. 3.
- 何娜娜·郭清艳(2010). “走出关系经济”困局：从关系到契约.” 『中南财经政法大学研究生学报』. 3.
- M.M. Yang(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09-145.
- E.W.K. Tsang(1998). “Can guan xi be a source of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for doing business in China?.”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2, no. 2, pp. 64-73.
- M.W. Peng & Y.D. Luo(2000). “Managerial ties and firm performance in transition economy: The nature of a micro-macro lin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3. no.3. pp.486-501.
- M.W. Peng & Y.D. Luo(2003). “Institutional transitions and strategic cho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8. no. 2. pp.275-296.
- F.F. Gu., K. Hung., & D.K. Tse(2008). “When does guan xi matter? Issues of capitalization and its dark sides.” *Journal of Marketing*. vol. 72. no. 4. pp. 12-28.
- Y. Bian(1994). “Guan Xi and the allocation of urban job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 140. pp. 971-999.
- K.K. Hwang(1987). “Face and favor: The Chinese power ga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pp. 944-974.
- Y. Fan(2002). “Questioning guan xi: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1. pp. 543-561.
- A.B. Kipins(1997). *Producing guan 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ke University Press. 1997.
- J. T. G. Arias(1998). “A relationship marketing approach to guan xi.” *European*

- Journal of Marketing*. vol. 32. pp. 145-156.
- J. Wu(2001). "State Policy and Guanxi Network Adaptation in China: Local Bureaucratic Rent-Seeking." *Issues & Studies*. vol. 37. no. 1. pp. 20-48.
- Y. Yan(1996). "The culture of guanxi in a North Village." *The China Journal*. no. 35. pp. 1-25.
- A. Smart(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vol. 8. no. 3. pp. 388-408.
- M. Mauss(1967). *The Gift*. New York: Norton.
- G.M. Anderson and P. J. Boetike(1993). "Perestroika and Public Choice: The Economies of Autocratic Succession in Rent-Seeking Society." *Public Choice*. vol. 75. no 1. pp. 101-118.
- Y. Fan(2002). "Questioning guanxi: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1. pp. 543-561.
- M. M. Yang(1994). "Gifts, favors,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 in Chin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ttp://www.asianbarometer.org>

Abstract

Cultural Impact of Chinese Guanxi :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uanxi and Corruption in China.

Lee, Jun Tae*

Kim, Jung Hyoun**

When we talk about Chinese people, the issue of social relationship is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topic in terms of Chinese people'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ttitudes. Not only do Chinese people recognize social relationship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ir social lives, but also people in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do so. Although Chinese society had been rapidly developed,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relationship has not been changed because Chinese people tend to regard social relationship as cultural tradition in China. This study is designed to show some light on how Chinese people acknowledge the role of social relationship in contemporary China. What the authors fin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a survey data (Asian Barometer 2009) are the following aspects. First, even though most Chinese people criticize all kinds of corruption which seem to be related to 'individual's social network (Guanxi)', those with such critic are more likely to accept the usefulness of Guanxi tradition in their social lives. It suggests that Guanxi culture ('utilizing individual's social network in problem-solving proces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Second, Chinese people blaming serious corruption in China have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not blaming the corruption. Third, because young peoples in China are not inclined to recognize Guanxi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making his/her life successful,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traditions in Chinese history, 'individual's social network (Guanxi)', would go out of existence as like other social and historical traditions.

■ 논문접수일 : 2011년 3월 25일, 논문심사일 : 2011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8일

* Assistant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